



(2) 은혜를 배운 기간의 차이

인간계에 찾아온 개 또는 고양이의 모습을 한 짐승에게 은혜를 배운 기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가① 삼년간,
- 가② 삼년간,
- 가③ 십년간 절에서 같이 먹고 키워주었음,
- 가④ 강아지가 큰 개로 될 기간,
- 가⑤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낚은 자리를 놓아줌,
- 가⑥ 몇 달간,
- 가⑦ 몇 달간,
- 가⑧ 어떤 집에서 9년간 공부를 가르쳐준 대가로 그 집에서 키우던 개를 받음,
줄 때는 잡아먹으라고 주었으나 잡아먹지 않고 1년간 키워주었음,
- 가⑨ 아이들이 잡아온 이상한 짐승을 달라고 해서 서너 달 키워주었음,
- 가⑩ 주막집의 강아지가 자꾸 따라와 십년간 키워줌,
- 가⑪ 3년간 동거하면서 키워줌,
- 가⑫ 약 삼년간,
- 가⑬ 약 삼년간,
- 나① 어떤 아이에게 1년여 동안 사서삼경과 주역을 가르쳐 주었음,
- 나② 설명이 없음,
- 나③ 몇 달간

해인설화의 첫 주인공이 짐승에게 은혜를 배운 기간은 짧게는 몇 달간, 길게는 십년 동안이었다고 이야기된다. 따라서 해인설화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 그 기간의 길고 짧음은 그다지 문제로 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짐승이 사람으로 변해 돌아온 기간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짐승을 먹여 살려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짐승이 사라진다. 그 후 그 짐승이 사람으로 변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을 찾아오는데,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 가① 한 달 뒤,
- 가② 사라지지 않고 3년 만에 사랑방에서 예쁜 처녀로 둔갑했음,
- 가③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나타났음,
- 가④ 사라지지 않고 어느 날 안개가 끼자 계집애로 변함,
- 가⑤ 낚시줄에서 풀려난 뒤 3-4시간 후,
- 가⑥ 몇 달 후,
- 가⑦ 얼마 지난 후,
- 가⑧ 사라지지 않았고, 어느 날 총각이 됨,
- 가⑨ 몇 달 후,
- 가⑩ 사라지지 않고 십년째 되는 새벽에 주인을 깨움,

한국의 보물, 해인<9>

- 가⑩ 3일 후,
- 가⑪ 이년 후,
- 가⑫ 일년 뒤,
- 나① 인사 올리려고 서천 서해국에 있는 자기 집에 가지고 하는 동자를 따라 나섬,
- 나② 울곡 선생이 용궁구경을 하고 싶다고 말해, 용왕의 허락을 받은 왕자를 따라 나섬,
- 나③ 몇 년 후

이처럼 짐승이 사람으로 변하기까지의 기간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얼마동안, 서너 시간 후 등의 경우처럼 매우 짧은 기간도 있고, 여러 해 동안이라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짐승을 먹여 살린 경우는 삼년간이었는데, 이때는 그 짐승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짐승이 사라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처녀나 총각으로 변했다고 이야기된다.

특히 짐승이 여자로 변한 경우는 모두 사라지지 않았던 경우이다. 그리고 나②에서는 사람이 직접 용궁구경을 가고 싶다고 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4)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한 호칭

사람으로 변한 짐승이 자신을 먹여 살려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부르는 호칭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가① 어르신,
- 가② 주인양반,
- 가③ 아버지,
- 가④ 아버지와 어머니,
- 가⑤ 선생님,
- 가⑥ 대감,
- 가⑦ 선생님,
- 가⑧ 선생님,
- 가⑨ 대감,
- 가⑩ 할아버지,
- 가⑪ 선생님,
- 가⑫ 할아버지,
- 가⑬ 아버지, 어머니,
- 나① 선생님,
- 나② 선생님,
- 나③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등 혈연관계를 뜻하는 호칭으로 불러 매우 친근함을 강조한 경우가 5번이고, 선생님이라는 비교적 친근한 관계를 상징하는 호칭으로 부른 경우가 6번이다. 그리고 어르신, 주인양반, 대감 등 공식적인 호칭으로 부른 경우는 4번이다. 은혜를 입은 쪽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혜가 깊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5) 용왕국의 왕자가 인간 세상에 미물의 허물을 쓰고 나오게 된 내력

사람으로 변한 짐승이 자신의 본래 신분을 용왕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용왕의 아들 혹은 딸이었던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짐승의 몸을 빌려 인간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가① 용왕국에서 비를 잘못 내리게 한 죄로 민간에 내보내졌음,
- 가② 득죄(得罪)해서 인간 세상에 왔음,
- 가③ 득죄해서 인간계에 왔음,
- 가④ 득죄해서 세상으로 쫓겨 왔음,
- 가⑤ 잘못해서 낚시밥을 삼켰기 때문,
- 가⑥ 용왕한테 혼이 나서 개 노릇을 했음,
- 가⑦ 죄를 짓자 선생님에게 가서 몇 달간 배워오라는 용왕의 명령이 있었음,
왕자가 비를 내리는 직책을 맡았었는데, 비를 너무 많이 내려 사람이 많이 죽었음. 일을 경솔히 했으므로 선생님의 무거운 태도와 행실을 본받고 오라는 용왕의 명령을 따랐음,
- 가⑧ 설명이 없음,
- 가⑨ 배를 잘못 지은 죄로 인간계에 나왔음,
- 가⑩ 죄를 지은 수궁왕의 둘째(셋째)아들이라고 설명함,
- 가⑪ 죄를 지어 육지에 3년간 귀양 왔음,
- 가⑫ 죄를 지어 금사망을 입고 인간계로 왔음,
- 가⑬ 설명이 없음,
- 나① 글공부를 배우러 왔음,
- 나② 울곡의 학문이 유명하니 가서 글을 배우고 오라는 용왕의 명령을 받았음,
- 나③ 죄를 지어 개 허물을 덮어쓰고 인간계에 왔음.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의 몸을 한 채 인간 세상으로 쫓겨 왔다는 이야기이다. 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경우도 많고,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기가 인간 세상에 비를 내리게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비를 너무 많이 내리게 하여 인명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용왕의 아들이 낚시밥을 삼켰다는 아주 우연한 일에 의해 인간계로 잠시 나온 경우도 있고, 인간 세상의 유명한 학자에게 글을 배우고 그의 진중한 행실을 본받으려 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낚시밥을 잘못 삼킨 경우는 매우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죄를 지었거나 글을 배우러 인간 세상에 온 경우는 필연적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거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특히 인간 세상의 훌륭한 학식과 본받을 만한 덕행이 있는 사람은 용궁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설명이 흥미롭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뛰어난 인물에 대한 소문이 용궁이라는 이상향에도 퍼져있다고 생각한 점은, 두 세계간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택 박사 / 신종교 연구가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VI

삼신 사상과 삼위일체 사상, 신주단지과 만나 항아리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 VI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⑩

한민족의 신앙 사상 가운데 삼신할머니로 호칭되는 삼신 숭배 사상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호칭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들이 낳으면 칠 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면 우리 한민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녀 모두 엉덩이에 몽고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삼신할머니가 점지하여 낳은 자녀라 말합니다. 이처럼 삼신을 섬기는 사상이 같음을 알 수 있으며 두 민족 특유의 천손민족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말에 귀중 물품을 애지중지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고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풍속인 신주단지를 모시는 풍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정에서 신주단지를 모시는 풍속은 1960년대인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언약(법계) 안에 십계명을 새긴 석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넣어 간수함

는 일이었습니다.

신주단지를 모시는 방법은 쌀 1되(2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에 풀이나 햇곡식을 담아서 안방 천장 아래 높은 곳에 작은 선반을 설치하여 그 위에 신주단지 항아리를 올려놓고 보관하는 풍속입니다. 이러한 풍속의 유래를 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광야로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매일 새벽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때 먹은 만나의 맛과 모양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갓찌 같고도 회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기를,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만나를 한 오멜씩 굵거나 삶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시

기를, "이것을 항아리에 한 오멜(2리터 정도)를 담아 나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후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성막에 모신 법계(언약) 안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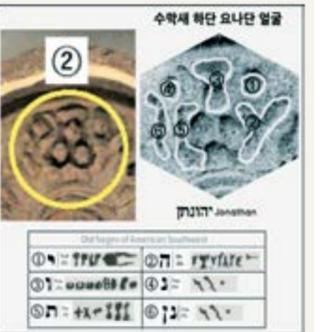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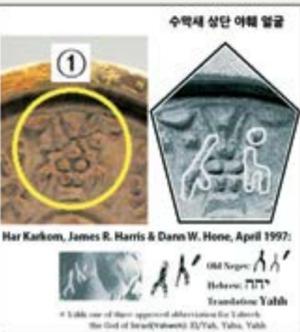
이처럼 우리 민족은 전통적 신앙풍속에 따라 신주단지를 모셔왔는데, 고조선이 망하고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그 유래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미신으로 취급받아 이제는 신주단지를 구경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풍속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담긴 성경이 한민족에게 전해지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단군민족 가운데서 출현하게 됨을 알게 되었고 단군 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라는 뿌리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까지 지켜온 한민족의 전통 풍속이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시한 약속의 말씀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一行 徐輔睦

고조선 시대 기와 와당에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꽃무늬수막새>에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다. 단지파 장수 삼손이 활약하던 사사시대에 사용된 올드네게브 문자이다. 이 문자는 모세 당시 십계명 석판에 새겨진 문자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꽃무늬 와당의 상단 문양은 <아해>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얼굴 문양에 하나님(יְהוָה Yahh)을 뜻하는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를 새겨 넣은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와당에 사용된 문자는 암각화에 새겨진 3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님(יְהוָה Yahh)' 즉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산지 「하트 카르복(Har Karkom)」에서 발견된 올드네게브 문자(BC1200)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꽃무늬 와당의 하단 문양은 모세의 손자이자 단지파의 제사장 <요나단> 얼굴 모습이다. 육각형 안의 문양에 6개의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조합되어 있는데, 올드네게브(Old Negev)의 합자어(Ligatures)로써 '요나단(יְהוֹנָתָן Jonathan)'의 이름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자해독 방식은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의 저서 『The Name of God』를 참고했다.*